공포·스릴러 계절이 없다

'궁녀' 130만 관객 … '우리 동네' '세븐데이즈' '가면' 등 개봉 대기

'공포와 스릴러는 여름에 본다'는 공식이 깨졌다. 한국 영화의 흥행 부진 속에서도 궁중 스릴러를 표방한 '궁녀'가 관객 130만명을 넘기며 순항하고 있고 개봉 대기중인 작품도 많다.

공포와 스릴러는 한국영화 중 가장 취약한 장르로 꼽히는 분야. '궁녀'의 경우 신선한 소재로 관객몰이에 성공했으며 최근 공개된 '세븐데이즈'는 평단으로부터 '한국영화답지 않은 스릴러'라는 평가를 받았다.

▲세븐 데이즈

드라마 '로스트'로 월드 스타 대열에 합류한 김윤진이 주연을 맡은 영화다.

승률 90%를 자랑하는 유능한 여변호사가 유괴된 딸을 구하기 위해 벌이는 사투를 그린 작품으로 최근 열린 시사회에서 촘촘한 시나리오와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합격점을 받았다.

특히 한국 스릴러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뻔한 결말' 대신, 작품이 끝날 때까지 영화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긴장감을 준다는 평을 받아 흥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흥행 변수는 18세 이상 관람가라는 점. 딸을 유괴당한 유지연 변호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7일. 유괴범은 7일 안에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의 무죄 선고를 받아내지 못하면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유지연은 피말리는 법정 싸움을 시작한다.

김윤진 이외에도 뛰어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박희순이 유지연을 돕는 경찰로 출연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우리동네

국내 영화에서 다뤄진 적이 없는 '모방 살인'을 소재로 한 스릴러물이다.

평온한 동네에 동일한 방식의 연쇄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피살자는 모두 여성으로 발견 당시의 모습은 모두 동일하다.

추리소설가 지망생 경주는 월세금을 독촉하던 집주인과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연쇄살인범을 모방하여 시체를 처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역시 동일범의 소행으로 단정 짓지만 오직 강력계 반장 재신만이 마지막 사건은 모방범의 소행임을 직감한다. 드라마 '왕의 남자'와 '커피 프린스 1호점'으로 주가를 올린 오만석과 이선균이 출연하며 영화배우 류덕환이 살인범으로 출연, '천하장사 마돈나' '아들' 등 기존 작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가면

세 남자를 살해하고 사라진, 몽타주 없는 연쇄 살인범의 실체를 둘러싼 미스터리 스릴러물이다.

군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후 당시 사건의 가해자 3명이 살해되고 유력한 용의자로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이윤서'가 지목된다. 하지만 그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 형사 조경윤의 노력으로 이윤서의 정체가 차츰 밝혀지지만 그 순간부터 사건은 예기치 않은 결말로 치닫는다. 김강우와 김민선이 경찰대학 시절부터 단짝이자 살인범을 쫓는 형사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바람의 파이터' '홀리데이'의 양윤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목! 이 영화 색, 계

양조위·탕웨이 정사 신 화제

'와호장룡' '센스 앤 센서빌리티' 등으로 할리우드에 안착한 리 안 감독에게 '브로크백 마운틴'에 이어 두번째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안겨준 작품이다.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정보부 부장과 여성 스파이의 위험한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 주인공 역을 맡은 양조위와 탕웨이의 파격적인 정사 장면이 화제를 모았다. 홍콩과 대만 등지에서 18세 이상 등급 영화로는 흥행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무삭제판으로 개봉됐다.

일본의 침략을 받은 상하이를 벗어나 홍콩대학으로 유학을 온 왕치아즈는 연극을 하며 희열을 느낀다. 연극반 리더 광위민에 매료된 왕치아즈는 그가 친일파의 핵심 인물인 정부부 대장 이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동참하지만, 이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이에게 강하게 이끌린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미숙·천호진 부부로

박보상 감독 영화 '배꼽'서 호흡

이미숙〈사진 왼쪽〉과 천호진이 부부로 만난다.

두 사람은 박보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배꼽'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 사랑을 꿈꾸는 부부역할을 맡았다.

천호진은 교내 최고의 퀸카에게 마음을 빼앗긴 서교수역을 맡았으며 이미숙은 백화점 문화센터 사진강사와 사랑을 꿈꾸는 아내 혜경역으로 출연한다.

두 사람의 상대역은 최근 드라마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에 출연한 김승우와 모델 출신 배우 김효진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더 버터플라이	
유괴범을 소재로 한 스릴러물로 피어스 브로스넌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로스트 라이언즈	
톰 쿠르즈, 메릴 스트립, 로버트 레드포드 등 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정치 드라마.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색, 계	
리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애정물로 양조위가 주연을 맡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
세브란스	
잔혹함과 코믹함을 오가는 공포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엔터, 하미
식객	
허영만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김강우·임원희 등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블랙 다알리아	
끔찍한 모습으로 살해당한 여배우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캐는 작품. 18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히어로	
일본 최고의 배우 기무라 타쿠야가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인기 드라마를 영화화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바르게 살자	
장진이 시나리오를 쓴 코미디로 '은행강도 모의 훈련'이 소재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킹덤	
테러리스트와 FBI 요원들의 대결을 그린 액션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엔터
궁녀	
조선시대 궁녀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스릴러물.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M	
이명세 감독과 강동원이 호흡을 맞춘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 15세 이상 관람가.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